

‘전북형 혁신 플랫폼’ 미래 비전 선포

전북대 RISE사업단 비전 선포식… 4대 핵심가치로 혁신 생태계 조성, 융복합 인재양성 등 추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6일 진수당 2층 글로벌홀에서 RISE사업단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혁신 플랫폼’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도지사 대리), 전북RISE위원회 위원, 전북RISE센터 채수찬 센터장, 도내 대학 RISE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오봉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비전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도약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Resilience(회복력), Initiative(주도성),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Empowerment(역량강화)의 네 가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 RISE사업단의 비전 슬로건 ‘더 전대 라이즈 플러스(The JeonDae RISE+)’를 중심으로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협력 확대 △창업·청년기업 지원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을



6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글로벌홀에서 전북대 RISE사업단 비전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혁신 플랫폼’의 미래 비전을 선포한 뒤 화이팅을 하고 있다.

통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이 이어지는 지역 창업 허브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공학부 조형기 교수의 ‘2026 CES 혁신상’ 수상 사례를 소개, RISE사업이 지역 산

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대학이 하나로 연결되는 ‘전북형 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청년이 머물고 산업이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거버넌스, 소통·협력으로 완성

전북·시군교육거버넌스 합동 워크숍 오늘까지 부안서 개최
발전 방향·실천 과제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7일 이틀간 부안 모항 해나루호텔에서 ‘2025 전북교육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 40명과 본청 및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62명 등 총 102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은 지역교육거버넌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북형 교육거버넌스의 발전 방향과 실천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첫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션별 회의 및 간담회, 특강 등이 진행됐다.

지역 세션별 강의에서는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실질적 거버넌스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재학 지역리더십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서 ‘민관협력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변화하는 교육환



6일 부안 모항 해나루호텔에서 ‘2025 전북교육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 속에서 거버넌스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둘째 날은 학생해양수원원을 방문해 독도체험관·해양안전체험관·수영장 등의 체험시설을 둘러보고, 학생 안전교육과 해양교육의 우수 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교육지원청 거버넌스 업무담당자 간담회도 마련해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거버넌스 추진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조정현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은 “거버넌스의 핵심은 현장의 목

소리를 담아내는 협력”이라며 “이번 합동 워크숍을 통해 각 지역이 가진 교육자원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형 협력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워크숍은 교육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북형 교육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수능 앞둔 수험생 응원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 1주일 앞둔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인생의 큰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고 긴장돼 되겠지만 결에는 늘 여러분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내서 갈 바란다”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까지 그대 왔듯이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고 했다.

이율러 “전북교육청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디지털세상 집합과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최근 교사교육센터 멀티강의실에서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디지털세상 집합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교육대학교가 ㈜타임교육CXP, (주)알타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인 2025 디지털세상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및 문제 해결 중심 역량 함양을 목표로 진행됐다.

집합과정에서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라! SDGs코딩 챌린지’, ‘네이버와 기술로 해결하는 미래-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 학생들이 기후변화, 에너지, 지역소멸, 디지털 세상 살생활 속 사회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탐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형 학습에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신입생 선발 추첨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서선영)는 지난 5일 팔마누리관(다목적 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60명(남 30명, 여 30명) 모집에 149명(남 73명, 여 76명)이 지원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자를 뜻하는 구슬의 색깔을 발표하는 순간마다 아쉬움의 탄식이 교차하며 강당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이후 당첨된 합격자들은 모두 신입생 등록을 시작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상권에 새 활력 불어넣는다

전주대, 내일 ‘전주 글로벌상권 팝업스토어’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창업지원단이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주)크립톤(대표 양경준)과 손잡고, ‘전주 글로벌상권 팝업스토어’를 개최하며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주 구도심 상권의 중심지인 구 오렌지웨딩 건물에서 열린다. 재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로컬콘텐츠, 그리고 사업화 모델로 탄생하는 과정을 전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전시 행사를 넘어, 전주대학교가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온 ‘JB로컬스

타트업빌리지’의 집약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팝업스토어에서는 13개 팀이 전주의 자원과 문화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시제품들을 대거 전시하고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 글로벌 상권의 로컬크리에이터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하게 했다.

한편, 전주 글로벌상권 팝업스토어는 전주 시민과 전주를 찾는 방문객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지역 소상공인 등 로컬 콘텐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즐길 수 있다. 현장에서는 제품 구매 외에도 학생 창업가들과 소담한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생성형 AI 서비스’ 전북 GPT 정식 오픈 업무 부담 덜고, 수업 재미 높이고

교사 시범 운영서 “수업 구상에 아주 유용” 등 호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용 소프트웨어(SW) 3종을 지원한 데 이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전북 GPT)’를 정식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Graphics(그래픽 제작) △전북Writing(글쓰기 첨삭) △전북Quiz(퀴즈·보드 활동) 등 기존 3종과 더불어 전북 GPT(생성형 AI)까지 총 4종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보급된 ‘전북 GPT’는 교원의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제미니AI(Gemini) 2.5 Pro 등 최신 AI 모델을 교사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질문의 성격에 따라 최적화된 답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내년 모든 학생과 교원은 학교 계정을 발급받으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메신저 킷메뉴에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3종 소프트웨어를 학교3.0(https://je.go.kr/sc3) 포털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오픈에 앞서 진행된 교사 시범

운영에서 현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참가 교사들은 “근무 중 궁금한 사항을 바로 입력해 알 수 있어 정말 좋았다”, “수업을 구상하는 데 채팅을 활용했는데 아주 유용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 외에도 “최신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준다”,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답을 해준다”, “답변이 안정적이며 수준이 높다”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GPT’의 현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6일 미래교육연구원 시정각실에서 시·군·정·보교육지원단, 에듀테크 담당자 및 희망 교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GPT의 개념과 가능성 △생성형 AI 활용 윤리 및 프로토타입 작성 팀 △업무지원 및 수업자료 제작 방안 등을 안내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용 SW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은 덜고,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소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한 즐거운 수업으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동북아법연구소, 中 서북사범대와 학문 교류 협약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와 중국 서북사범대학교가 양교 간 학문 교류와 법학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북사범대 왕취안진(王全金) 당위원회 부서기와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송문호 소장을 비롯해 양교 전문가 및 대학원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왕취안진 부총장은 인사말에서 서북사범대의 민상법, 교육법 등 특색 있는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중국과 한국이 동북아 법치 협력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법률 교류를 위한 고품질 플랫폼



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문호 소장은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는 오랫동안 동북아 법학 연구를 선도하며 다양한 연구 성과를 쌓아왔다”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양국의 학문적 교류를 한층 심화시키는 뜻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RISE사업단, AI역량강화 전문가 특강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은 다음달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AI역량강화 전문가 특강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리즈의 첫 번째 특강은 지난 5일 약학관 3층 세미나실에서 정대식 인실리코스 대표를 초청해 ‘NPU 바이오 선행연구 기반 Omnitrax-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12일에는 전주교육대학교 임태형 교수가 ‘AI시대, 우리 삶의 변화와 올바른 대학 생활’을, 21일에는 가천

대학교 이선희 간호대학장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에이징’을, 같은 날 창작제작소 선 최선주 대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식관광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26일에는 샌드버드 환경영개발자의 ‘AI 리더러시를 넘어 AI Competency로: 지식의 경계를 재설계하다’를 진행한다.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이엔지테크 박성건 수석연구원의 ‘스프츠 인공지능 기술과 시장동향’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미국 밀워키대와 글로벌 PBL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미국 밀워키 대학교에서 글로벌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국제적 역량을 강화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간호대학 김혜영·장형은 교수와 학부생 8명(강세영, 김아린, 서주현, 심가희, 양지혜, 유지운, 이대성, 조아영) 및 대학원생 2명(김은영, 박유진)은 지난 10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대학교를 찾았다.

이번 연수는 글로벌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PBL(Project-Based Learning)’ 프로그램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글로벌 및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간호 실무의 현장을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장은성 기자

새정부 유보통합 정책 방향·지원사업 공유

교육청·지자체 유보통합 업무담당자 합동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전주 더베이호텔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유보통합 업무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새 정부의 변화된 유보통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2026년 영유아교육·보육 기관 지원 사업을 안내해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업무담당자, 도청 및 시·군 보육업무담당자,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담당자 등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교육청·도청의 협력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직원들과 교육지원청 유보통합담당 장학사들이 한데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병승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이 ‘유보통합 정책 여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유보통합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유학생 체육대회… ‘TheU·M’ 일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6일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5학년도 유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대학의 유학생 특화 관리프로그램인 ‘TheU·M’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15개국 810명의 유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줄다리기, 다람쥐통, 협동관 빙기 등 다양한 경기와 행운권 이벤트를 통해 활기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